

설교후기도 설 교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를 허락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 때, 더욱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평안과, 마음과 영혼의 민족을 통해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찬송 442장 다 같 이

- 1)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 2)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 3)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과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 (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후 교제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지닌 한가위입니다.
2022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함께하는 귀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명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앉습니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2년 추석 가정예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8)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오늘은 한가위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다 갈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 559장 다 갈 이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가 족 대 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사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서 사랑으로 배풀고 나누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16편 8~11절 말 은 이

-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9)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 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말 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많은 걱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러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함이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형편은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가족들에게도 삶의 순간순간 위기와 시련이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함이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마음과 영혼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멸망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2절에서 고백했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혼과 마음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회복을 누리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모두들 치저 있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이 시를 쓸 때 고난과 위기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것이지요. 이로 인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처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열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함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누리고 있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 19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